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11.28.(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성우 위원 9인(이상헌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외신 인용에 대해 살펴본다. 외국의 현지 언론사 보도는 우리 언론 보도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현지 언론 인용 관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시청자위원회에서 중국 CCTV가 제작한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관행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11월 미국 대선도 유사한 사례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결과론이지만, 이는 선거전 주류 언론의 예상과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TV의 미 대선 보도 기사는 다음과 같다. 선거 직전인 3, 4일에는 초박빙, 해리스 근소 우세로 그리고 투표중(11월 5일 14시 ~ 11월 6일 15시, KST)에는 초박빙, 해리스 우세로 보도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경합주 7곳 모두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여론조사 예측이 잘못됐다는 보도(2024-11-06 23:53:19 또 빛나간 여론조사...'우리천장'앵그리 투표'에 막힌 해리스)가 나왔다. 이런 보도 패턴은 한국의 모든 매체가 비슷했다. 이는 미국 주류 liberal 매체 보도를 관행적으로 인용한 결과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주류매체에 친 민주당 bias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국의 친 공화 매체는 트럼프 우위로 판세를 보도해 왔다. 미국 매체의 정파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의 트럼프-푸틴 통화 오보 기사(트럼프 "확전 말라" 푸틴과 통화...러는 종전 구상에 "긍정적 신호" 2024-11-11 15:58:12/ 트럼프, 푸틴과 통화...유럽내 미군 거론하며 "우크라 확전 말라" 2024-11-11 07:19:23)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TV는 몇 시간 뒤 이 보도가 거짓이라며 크렘린궁 대변인 반박을 인용 보도했다(크렘린궁 "'푸틴·트럼프 통화' 美 보도는 허구" 2024-11-11 21:18:03). 해외 뉴스 보도 관행에 무언가 허점이 나타났다. 개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미국 대선 보도의 승패 관련 보도는 미국 대선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기사를 저희가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저희 미국 주류 언론 신문으로 치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방송은 CNN, NBC 이런 방송들 그리고 폭스뉴스 그리고 통신은 AP, AFP, 로이터, 이런 데를 인용할 수밖에 저희가 없습니다. 그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요. 또 아니면 자기들이 여론조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매체들을 저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 매체들이 막판에 미국 주류 언론이 해리스의 우세를 다 점 쳤는데 저희가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외교 박사학위를 받은 임은정 공주대 교수를 아침에 저희가 그 대담으로 초청을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것을 종합해서 트럼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반드시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국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자기가 빅데이터 분석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일방적으로 트럼프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해리스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오늘 아침 현재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아침의 보도는 사실상 제가 그 기점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보도를 우리가 좀 더 중립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다만 저희 보도만 한 3~4일 정도 봤으면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예측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 향후 미국 대선 보도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을 뽑는 이런 선거를 어떻게 보도할 건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에 나오는 주류 언론 외에도 저희가 특파원이 있는 경우는 특파원이 현장 민심의 목소리를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저는 정치 대담 프로그램인 11월 18일 '뉴스1번지' 1번지초대석 코너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요즘 정치적 요소로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패널들의 역할은 시청자에게 이슈에 대해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일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초대하여 앵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후 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들으면서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반대 측 입장도 함께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진영의 방송만 듣게 되면 일방적 정보만 습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청자에게 팩트가 아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짧게라도 양측 시간을 배분하고 조절해서 시청자가 균형적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했으면 합니다. 만약 다음날 같은 프로 같은 시간대에 국민의힘 측을 대변하는 패널이 나오더라도 오늘 시청한 시청자는 내일 해당 방송을 보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보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상황이라면 앵커의 안내나 자막을 내보내서 시청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고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전문가 대담이나 정치패널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패널들은 시청자의 입이 되어주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시청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사회, 시사적인 면들을 다룰 때 배경, 사건의 전·후 상황, 그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또 문제가 없다면 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청자의 눈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을 이해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엔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과 방송의 메시지를 통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항상 균형이 잡힌 방송에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는 정치 대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인 게 여야 패널이 각각 나와서 1대 1로 대담을 하는 그런 형태의 대담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복수로 이렇게 한 4명 정도 해서 진행자까지 5명 정도가 나와서 각 당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은 저희가 각 당에서 중진급 의원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한 명한테만 듣는 그런 초대석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가 우연히 이재명 선고량 관련이 있었는데 이게 그전에 잡아냈던 거고요. 그날 그 의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이재명 현안 결국 정치 현안을 여쭙볼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고 답을 해서 그 프로그램만 봤을 경우는 민주당을 대변하러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박홍근 의원 말고 그다음에 다음 주로 잡혀 있는 저희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부르는 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균형을 1대 1로 한 번 더 불어민주당이 하고 한 번은 국민의힘이 하는 식으로 일정을 맞추고 있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 대선 같은 중요한 선거 기간에는 오늘은 누가 나왔고 다음 주 몇 월 며칠에는 누가 나온다는 걸 고지를 해요. 지난 선거 기간에는 고지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청자가 오해없게 앞으로 '1번지 초대석'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한 명을 초대한 거고 다음에는 상대당 의원을 불러서 또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것들 앵커 멘트나 아니면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현장의재구성] 트럼프 랠리 숨겨진 종목은 '개!...머스크가 변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른바 수혜 종목들의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구성으로 미 증시 사상 최대치 고공행진 중임을 보여주고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비트코인 강세, 선거 유세 중 2번의 피습으로 경호에 더 큰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중 AI 로봇 개 "스판"의 능력을 소개해줘 유익했으나 마지막에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일론 머스크는 가장 AI 응용, 적용에 적극적인 사업가가 AI의 인간 멸종위기 경고를 하면서 트럼프 랠리의 AI 로봇 시장의 향후 전망을 재미있게 구성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해보게하는 기획이었습니다.

- [이슈5]<5> 피부에 바른 화장품이나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닦으려면 꼭 필요한 제품, 바로 폼클렌저인데요. 시중에 워낙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품질을 따져보고 구매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0가지 폼클렌저의 세정력부터 가격까지 제품 간의 차이를 소비자24 누리집에서 검사 결과 확인 가능하다는 멘트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저희 프로그램 꼼꼼히 봐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현장의 재구성' 일반 뉴스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뉴스 시청자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기자들 PD 편집자가 늘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시청자들한테 다양하며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2024. 11. 14일 보도 되었던 [현장이슈] "선배님 나오신다 즐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신선재 기자가 보도한 수능 하루 전날, 서울 중동고등학교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의 고3 수능을 보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중동고 수능 출정식', "선배님 나오신다 즐 맞춰~!" 보도 내용은 점점 삭막해져가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후배 간의 따

뜻한 온기와 정을 느끼게 하는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요즘 학교 현장의 뉴스를 보면 학생인권 보호, 교권회복, 학생·학부모폭력 문제 등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와 이렇게 학교가 무섭게 변해가도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수능시험을 치르러 가는 고3 선배 수능생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2달 전부터 군무와 응원가를 준비하여 힘이 넘치는 일사불란한 응원전을 펼쳐주는 모습은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아직도 학교라는 교육 현장이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갖게 보도 내용이였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교육환경이 잘 실천되고 있는 좋은 면들을 많이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공교육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 2024년11월02일 최덕재 기자가 수능 날 청심환 신중히..."무작정 먹으면 졸릴 수 있어"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수능 전 청심환과 공진단을 오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능생들이 수능 전에 체질에 맞게 잘 복용하면 좋다는 광고성 보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석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급하게 복용하기보다는 신체 반응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능일 1~2주 전부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미리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에서 수능시험일 기준 1~2주 전에 방송된 점 등이다. 특히 마지막에 보도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가 SNS서 파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유통되기도 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파는 약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보도 내용 또한 "왜 수능날 청심환 신중히.... " 보도 내용에서 멘트를 해야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즉 'ADHD 치료제'='공부 잘하는 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서 인식을 시키기 위한 보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앞선 시청자 의견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뉴스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할 수 있게 보도한 뉴스 보도는 많은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줘서 약물 남용하게 하는 보도 내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연합뉴스TV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현장잇슈' 중동고등학교 콘텐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고 감동적인 내용이어서 오늘자로 찾아보니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육박했습니다. 정말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고 잘 만들어져서 저희가 포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청심환 이 부분은 기자가 이걸 광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보가 조금 요즘 하는 말로 TMI 조금 정보가 좀 너무 정보를 많이 주려다 보니까 조금 과한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류의 기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쓸 수 있도록 데스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

- 11월 13일 뉴스현장의 뉴스메이커에서 "260g 예랑이"의 소식을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잘 전달하여 너무 좋았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는 예랑이의 출생 당시 몸무게가 260g의 국내에서 가장 적은 체중으로 태어나 퇴원하기까지의 전체 소식을 차분하게 잘 전달해줘서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애랑이의 출산부터 가족의 희망, 의료진의 노력, 애랑이의 기적 등을 스토리텔링처럼 듣기 편하게 전달해줘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시청자로서 뉴스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너무 좋았고, 잘 전달해 준 아나운서의 자세와 목소리도 보기 좋았습니다.

- 11월 5일 뉴스워치에서 "연합뉴스 TV-한국전파진흥협회, 공동협력 MOU체결" 보도를 보면서 연합뉴스 TV가 과학기술 관련 많은 단체와도 MOU체결을 확대하여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뿐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12대 전략기술 등으로 이슈를 다양화하여 과학적 기반의 심포지움을 많이 주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원고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썼고 저희 조서연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구성 및 아주 잘 된 편집이어서 굉장히 괜찮았고 앞으로 이런 사실은 이렇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발굴해서 저희들이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도 채널에서 가끔은 이렇게 훈훈한 소식도 전달 할 수 있는 창구로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TV는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AI관련 기관과 MOU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3월 연합뉴스TV심포지움과 9월 연합뉴스TV경제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관련 아젠다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 진한수 위원

일본은 원폭 피해자 노벨상 수상...한국인 피해자 현실은, 해당 보도는 지난 1956년 결성하여 전세계 핵추방을 외치며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원폭 피해자단체 협의회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앵커는 "일본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원폭 피해자와 그들의 2세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 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일부 진료비 지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10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현재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도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세대를 포함한 피해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조차 없어 아쉬웠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맥락 없이 경기도 의회 의원과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원폭 피해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경기도가 이들을 자체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방안을 논의하는 지원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다', '2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는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일본에 비해 미흡한 현실을 전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 의회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은 추상적이라 와 닿지 않고, 오히려 지원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질문했다면 더 유의했을 것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제가 기사를 다시 한 번 이제 보게 됐는데 일단은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원폭 피해자 한국인 피해자의 전반적인 거를 다룬 사안인데 여기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전반적인 어떤 기사의 어떤 형태가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았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경기도의 회와 함께 하는 기획성 리포트라 경기도의원 인터뷰를 넣었고 주로 경기도 상황 위주로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재 내용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다각적으로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

- [뉴스프리즘]일본은 70세까지 일한다는데...정년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11일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애주기별 패턴이 늦어짐에 따라 과거 노인으로 취급되었던 60세 이상은 더 이상 사회인식 속에서도 노인이 아니다. 60세 정년은 더 이상 가정에서는 그동안 수고한 가장의 모습도 사회 속에서는 산업화를 이끈 세대로 존경받는 모습도 아닌 것 같다.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부양해야 할 부모와 사회적으로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해 보호해줘야 할 자식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활발히 일할 수 있음에도 밑에 후배직원들로부터 퇴물 취급을 받거나 은연중에 자리양보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년연장에 관한 보도를 통한 공론화는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리포트 중 보여주었던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나 특히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모습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노년층의 정년연장 및 사회일자리 확보는 반대로 청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 새로운 갈등요소이기도 하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었지만 신구세대간의 조화, 다가오는 시대에 노년층 일자리의 적응여부, 정년연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축소문제 등 여전히 궁금하고 다뤄줬으면 한다. 화두는 이미 던졌고 정년연장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니 만큼 균형감있는 추가적인 후속보도를 통해 닥쳐올 사회변화에 맞춰 세대상화간 공감할 수 있는 여론형성이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지자체들 "퇴직 막아라" 대작전 11월 17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철밥통,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공직에 대한 매력 저하로 청년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공무원이 왜 청년들에게 외면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은 채 청년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직 사회가 변해서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 사회가 변하지 않아서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인지 등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이 추가되었다면 좀 더 알찬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저희 뉴스 프리즘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 매체에서 다뤘는데 일단은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이제 곧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각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연합뉴스 TV가 이 문제를 한번 처음으로 다뤄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수준들 자체가 많이 뻗

어나가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 보도 자체도 아직은 기본적인 것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보도를 통해가지고 내년에도 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연합뉴스TV가 조금 선도해서 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떠나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기획 진단 두 편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요. 아마 두 번째 편을 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편에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따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는 두 번째 것만 보면 이런 부분이 잘 포함이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부분에 저희가 이게 공무원들 자살 했던 거 이 문제로 저희가 이 안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다루게 된 건데 그런 부분 중 큰 원인이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했고 다만 이제 그게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떠나는 이유에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AI 시대나 이런 시대를 맞서 다양한 직업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고도화되는 이런 시대를 맞아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종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꼭 이번처럼 진단이 아니어도 관련된 리포트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현상을 진단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뉴스프리즘] 일본은 70세까지 일한다는데...정년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저출생', '인구감소', '노인 연령 상향', '국민연금 연령 상향' 등 그 배경과 사회적 인식, 노동계·경영계의 입장, 논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다루고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수치나 사례 등이 많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자막이나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가 함께 표시되어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으나,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 관련 설명에서는 시각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자 이해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출근길 인터뷰] '정년이'로 돌아온 여성국극...원로배우가 전하는 이야기
드라마 '정년이'의 인기로 여성국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극에 대한 소개와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여성국극 대중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인지, 재촬영으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뉴스프리즘' 정년 연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뉴스프리즘이 15분짜리인 분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교적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그런 콘텐츠였다고 보입니다만 조금 미비한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정년 연장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출근길인터뷰'는 저희가 다시 촬영하고 이런 건 힘들었던게 이게 생방송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년이'의 인기를 계기로 여성 국극의 국가무형유산 등재 노력 등을 충분히 담아보려는 취지로 섭외했습니다. 인터뷰 장소도 여성국극예술협회 사무실로 하려 했으나 협회 사무실이 공사 중인 관계로 부득이 회사 로비로 모셔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방송 요령 등을 전달하고, 담당 PD가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생방송 전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가 방송 경험이 없는 경우 당초 얘기하려던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거나, 중복해서 발언하는 등 생방송 성격상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연자에 따라 생방송에 더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더욱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이상헌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서면 제출)

‘알면좋은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면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봐야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다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됐다거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고, 13일에는 김장재료와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소개하는 등 시기에 따라 혹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시의성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선 딱딱한 뉴스들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해당 코너는 뉴스피드에 포함시켜 접근성을 높여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알면 좋은 뉴스가 내용이 좋다고 이거를 유튜브 앞에 화면 피드에다 넣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네, 이상헌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 이성우 위원

- [단독] 신분증 없이도 똑똑...대포폰 개통 불법 프로그램 다시 활개(11.19.), 이번 뉴스는 신분증 없이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통신업계에서 또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2021년 4월에 연합뉴스TV는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이 반드시 인식돼야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언론이 제도 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한다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다른 불법 프로그램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 사진 파일로 개통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신분증 스캐너에 인식된 신분증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신분증으로 바뀌고, 본인 확인까지 이뤄질 정도로 기존 스캐너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앵커의 멘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국은 물론 통신업계의 주의를 주기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언론 본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사회 부정적인 이슈를 고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합

뉴스TV의 고발성 단독보도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성을 지닌 연합뉴스TV가 이러한 언론 본연의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사회 제도 개선에 꾸준한 기여를 이루어지시길 당부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 이런 류의 보도가 신문이나 통신사는 하기 힘들고 방송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도인데 앞으로 이런 일종의 고발성 이런 보도들을 많이 다뤄서 제도 개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단독 보도를 쓴 나경렬 기자가 사회부 기자인데 아주 문제의식이 많고 취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자여서 상당한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